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

KMI 북방물류 동향리포트 제98호 2019년 8월 7일

항만·물류연구본부 글로벌SCM연구실 △Tel.+82-51-797-4665 Fax.+82-51-797-4659 △총괄:이주호 러시아연구센터장 △감수:길광수 명예연구위원 △편집:김엄지 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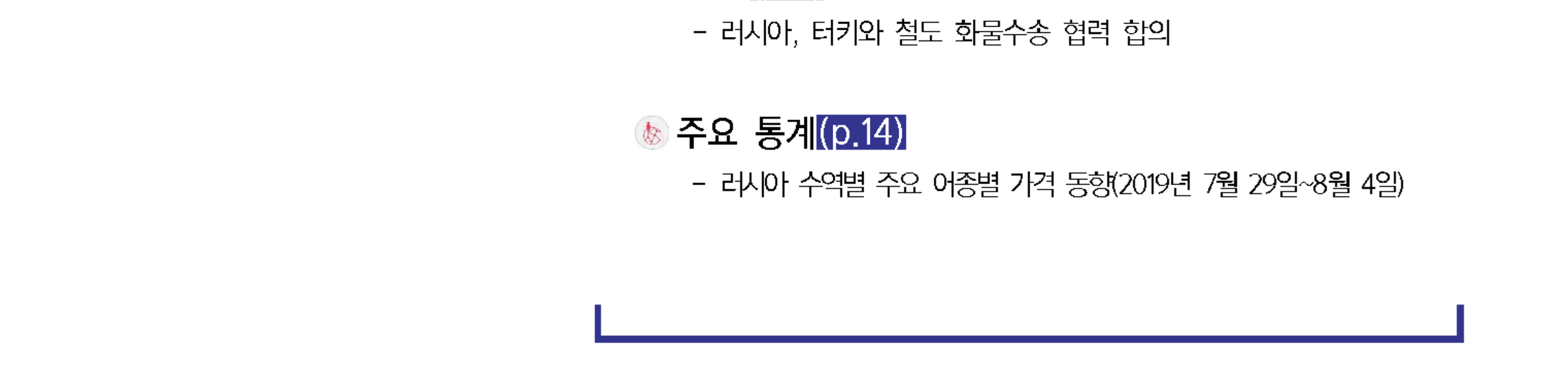
주요내용

주요 동향(p.2)

- 동부(p.2)
  - 바니노~홀름스크 운항용 페리선 건조
  - 러시아, 첫 해상원전 가동 준비 완료… '해상 위의 체르노빌' 우려
- 중부(p.7)
  -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항만 물동량 증가 추세
  - 카자흐스탄 동부지역 고속도로 정비 사업 착수
- 서부(p.12)
  - 러시아, 터키와 철도 화물수송 협력 합의

주요 통계(p.14)

- 러시아 수역별 주요 어종별 가격 동향(2019년 7월 29일~8월 4일)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
KOREA MARITIME INSTITUTE

서부권역 : 러시아 서부, 우크라이나, 벨라루스 등 / 중부권역 : 중앙아시아, 몽골 / 동부권역 : 러시아 극동, 시베리아

동부권역 주요 동향

▌바니노~홀름스크 운항용 페리선 건조

- 아무르강에 위치한 '아무르 조선소'는 바니노와 홀름스크를 연결하기 위한 첫 번째 페리선을 건조함
  - 페리선 건조는 러시아 연방 국가 프로그램 중 '교통시스템 개발'에 포함된 프로젝트로 선박건조에 연방예산 약 55억 4,400만루블과 사할린 지방정부 예산 약 40억루블이 조달됨
  - 이번에 건조된 '알렉산드르 데예브' 페리선은 외벽 두께를 강화해 1미터의 얼음에서도 운행이 가능함
  - 페리선은 3개의 화물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30개의 철도화차, 48개의 화물차, 28개의 승용차를 수용 할 수 있음

'알렉산드르 데예브' 페리선

자료: 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23034/#gallery(검색일: 2019년 8월 4일)

- 화물 및 여객 운반을 위해 건조된 페리선 '알렉산드르 데예브'는 콤소몰스크-나-아무레의 특수부두로 옮겨 선박의 외부 페인트 작업 및 밸러스트 탱크 테스트, 바닥 보강재 등의 작업을 할 예정임

  - 사할린주는 사할린섬과 러시아 본토 연결에 페리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번에 건조된 현대식 페리선이 이용자들에게 편리성과 안정성. 신뢰성을 줄 것으로 전망함

참고자료 : 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23034/(검색일: 2019년 8월 4일)

김은미 현지 리포터(국립극동교통대학교)

051-797-4776, usea1004@gmail.com

▌러시아, 첫 해상원전 가동 준비 완료… '해상 위의 체르노빌' 우려

- 러시아 첫 해상원전 Akademik Lomonosov가 무르만스크에 도착·가동 준비를 완료함
  - Akademik Lomonosov는 바지선에 KLT-40S 원자로 2기가 설치되어 있음
  - 원자로는 저농축 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해 약 10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7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
- Akademik Lomonosov는 무스크만스크를 출발해 8월 중 러시아 최북단 도시인 시베리아 패배코에 도착 후 본격적으로 원전을 가동할 예정임
  - Akademik Lomonosov에서 생산된 전기는 시베리아 추코트카의 가정과 자원 채굴 및 시추 현장에 공급될 예정
- 환경단체 크린피스는 해상원전이 사고에 노출될 경우 '떠다니는 체르노빌'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
  - 러시아 핵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국영기업 로사톰은 해상원전은 침몰하지 않으며 충돌에 따른 충격이나 최고 7m 높이의 파도를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다고 설명함
  - 그리고 Akademik Lomonosov에 적용된 핵기술은 이미 러시아 핵 쇄빙선 함대에 사용된 기술임을 밝힘
  - Akademik Lomonosov 최고 기술책임진 중 한 명인 블라디미르 이르 민쿠는 "사고 및 원자로 정지 시, 원자로 아래에 있는 차가운 물이 외부 수습 선이 도착할 때까지 냉각수로 사용될 수 있다"고 말함

해상 원자력 발전소 Akademik Lomonossow

자료: CNN

해상 원자력 발전소 운항 경로

자료: CNN

참고자료 : https://www.theguardian.com/world/2019/aug/04/russia-floating-nuclear-power-station-chernobyl-on-ice(검색일: 2019년 08월 06일)

https://www.msn.com/en-xl/europe/top-stories/fears-of-chernobyl-on-ice-as-russia-prepares-floating-nuclear-plant/ar-AAFkjg5?li=BBJDXDP&OCID=AVRES007(검색일: 2019년 08월 06일)

https://edition.cnn.com/2019/06/28/europe/russia-arctic-floating-nuclear-power-station-intl/index.html(검색일: 2019년 08월 06일)

https://edition.cnn.com/2019/06/28/europe/russia-arctic-floating-nuclear-power-station-intl/index.html(검색일: 2019년 08월 06일)

권보배 전문연구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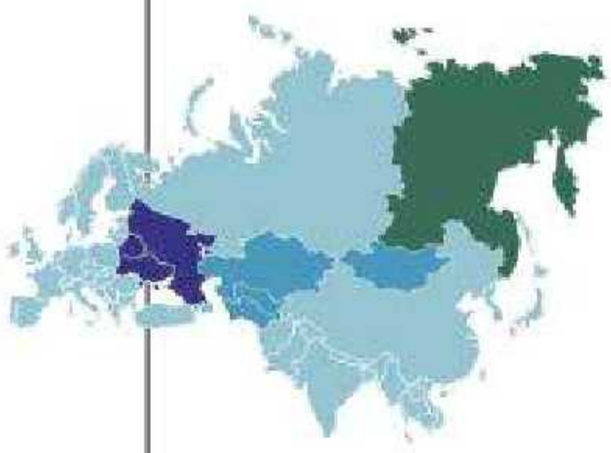
051-797-4774, b2kwon@kmi.re.kr

중부권역 주요 동향

▌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항만 물동량 증가 추세

-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(Mykolayiv) 소재 올비아(Port of Olvia)항의 2019년 1~7월 물동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.8% 상승했음
  - 특히 올해 7월 물동량은 229.1%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, 올비아 항만운영사와 EVT 터미널은 총 151만 8,840톤의 화물을 처리했음
  - 이 중 수출 물량은 전년 대비 7.2% 상승한 141만 8,860톤을 기록했고, 수입 물량은 325.8%가 상승한 8만 5,210톤에 달했음. 다만 경유 화물은 3.6%가 감소해 4,300톤에 머물렀음
  - 특히 곡물제품, 건축자재를 비롯한 산적화물(bulk cargo)과 미네랄 비료 화물이 물동량 증가에 기여했음. 곡물제품 물동량은 52.5%가 상승해 44만 7,730톤을, 건축자재는 5.7%가 상승한 41만 9,220톤을, 그리고 미네랄 비료는 전년 대비 12.5배가 상승한 7만톤을 각각 기록했음. 특히 EVT 터미널은 올해 초 58만 270톤의 화물을 처리해 농산물 물동량 성장세가 두드러졌음
  - 올비아항은 서유럽 및 북아프리카, 중동지역 수출 노선을 지향하고 있으며, 카길(Cargill), 글렌코어(Glencore) 등 미국과 스위스의 관련업종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한 바 있음

- 한편 아조프해(Sea of Azov) 연안의 마리우폴(Mariupol)항의 물동량 또한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, 올해 7월 환적량은 47만 5,400톤을 기록했음(수출 36만 6,700톤, 수입 13만 8,200톤)
  - 마리우폴항의 최대 환적 품목은 금속으로 19만 8,600톤을 기록했고, 그 다음으로 주철(7만 4,100톤), 석탄(6만 9,400)톤, 건축자재(6만 톤) 순임. 반면 곡물은 약 5만 7,000톤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음
  - 이와 같은 특징은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전통적인 주력산업이 광공업이라는 점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



– 우크라이나 항만 물동량에서 현저한 비중을 차지하는 항만들은 미콜라이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오데사(Odessa), 초르노모르스크(Chornomorsk) 등 서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음

– 반면 마리우폴을 비롯한 헤르손(Kherson), 베르댠스크(Berdyansk) 항은 크림반도 및 동부 친러 반정부세력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충돌 위협이 도사리고 있음. 하지만 이와 같은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항만시설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

미콜라이우 올리바 항과 마리우폴 항 위치

자료: Google Maps 2019

참고자료 : https://maritimebusinessnews.com.ua/%d0%bf%d0%be%d1%80%d1%82-%d0%be%d0%bb%d1%8c%d0%b2%d1%96%d1%8f-%d0%b2-%d1%81%d1%96%d1%87%d0%bd%d1%96-%d0%bb%d0%b8%d0%bf%d0%bd%d1%96-%d0%be%d0%b1%d1%80%d0%be%d0%b1%d0%b8%d0%b2-%d0%bf%d0%be%d0%bd%d0%b0/2019/08/05/

https://maritimebusinessnews.com.ua/%d0%bc%d0%b0%d1%80%d1%96%d1%83%d0%bf%d0%be%d0%bb%d1%8c%d1%81%d1%8c%d0%ba%d0%b8%d0%b9-%d0%bf%d0%be%d1%80%d1%82-%d1%83-%d0%bb%d0%b8%d0%bf%d0%bd%d1%96-%d0%bf%d0%b5%d1%80%d0%b5%d0%b2%d0%b0%d0%bd%d1%82/2019/08/05/

(검색일: 2019년 8월 6일)

조용성 현지리포터(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)

+7 981-198-65-06, mirinae2929@gmail.com

▌카자흐스탄 동부지역 고속도로 정비 사업 착수

▪ 카자흐스탄 동부지역 우쉬아랄(Usharal)~도스특(Dostyk) 구간의 고속도로 정비 사업이 시작됨

– 우쉬아랄과 도스특 지역은 카자흐스탄 동부지역 내에서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 위치한 곳임

– 지리상으로는 카자흐스탄 경제 거점 도시 알마티와 신장위구르자치구 우루무치 중간에 위치하며, 도스특 군은 우루무치에서 가장 가까운 카자흐스탄 도시이기도 함

– 이러한 이유로 도스특 군에 소재한 기차역에는 우루무치행 열차가 주를 이루고 있음

– 특히 이들 도시 인근에는 알라콜(Alakol) 호수가 소재해있으며, 이곳은 알마티 주와 동 카자흐스탄 주에서 관광명소로 평가받고 있음

– 이에 카자흐스탄 당국은 향후 국내 및 중국 측 관광객 유입을 고려해 이 지역 고속도로 정비 사업을 착수한 것임

– 우쉬아랄 지역 알마스 아하노프(Almas Axanov) 부군수는 현재 알라콜 관광을 위해 관광객들이 철도나 항공을 이용하지만,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이후 휴가철에는 정비된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

▪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위치한 우쉬아랄~도스특 구간 고속도로 정비는 관광객 유입과 함께 화물 운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

– 도스특 지역과 중국 간 화물 운송 규모는 약 2,500만톤으로, 대부분 철도를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음

– 그러나 홍수 기간 이 지역에는 약 1,500량의 열차가 안전 상의 이유로 운행이 불가하기 때문에, 새로운 고속도로의 정비가 이러한 점을 보완해줄 것으로 기대함

– 세륵 아이다로프(Serik Aidarov) 건설 책임자는 이번 고속도로 정비 사업이 도로 폭 9m에 편도 2차로로 시행되며, 현재 12㎞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 작업을 마친 상태라고 전함

– 이번 고속도로 정비 사업에는 약 4,100만달러가 투입될 전망이며, 오는 2021년

까지 총 60㎞에 해당하는 구간이 정비될 예정임

우쉬아랄 ~ 도스특(드루즈바)의 위치

자료: Google Maps, (검색일: 2019년 8월 4일)

▌참고자료 : Khabar Agency (검색일: 2019년 8월 5일)

오상호 연구원

031-330-4145, editor405ca@gmail.com

서부권역 주요 동향

▌러시아, 터키와 철도 화물수송 협력 합의

▪ 러시아와 터키가 코카서스 지역과 터키 사이에 설치된 바쿠~트빌리시~카르스(이하 BTK) 철도노선에서의 화물수송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함

– 7월 12일 러시아의 물류·철도공사(РЖД–Логистика)와 터키의 태평양유라시아 물류사(Pasifik Eurasia Logistics)는 BTK* 노선을 통한 러시아와 터키 간 화물수송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합작기업을 설립하기로 했음

* BTK는 아제르바이잔, 조지아, 터키 간 협약에 의해 2008년 착공되었으며, 아제르바이잔 수도인 바쿠에서 터키의 카르스까지 이어지고, 총길이는 826km임

– 두 기관의 관계자들은 5월 6일 만나 MOU를 체결한 바 있음

▪ 러시아와 터키를 오가는 화물량은 4,000만톤으로 80%가 바다를 통해, 20%가 육지를 통해 수송됨

– 그러나 양국 간 철도를 통해 화물이 운송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

– 지난 1년 반 동안 BTK를 통한 화물수송량은 14만톤이었음

– 향후 2년간 BTK를 통한 화물수송량은 5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

▪ 양국 간 협력은 양국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중소기업들 간 무역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며, 특히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

– 러시아의 물류·철도공사와 터키의 태평양유라시아물류사는 중기적으로 BTK를 통한 화물수송량을 500만톤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음

바쿠-트빌리시-카르스 철도 노선

주: BTK 철도 노선은 흰색, 검정색 점선.

자료: 위키미디어.

참고자료 : Minval.az(검색일: 2019년 07월 28일)

https://minval.az/news/123904008(검색일: 2019년 07월 28일)

EurAsia Daily(검색일: 2019년 07월 28일)

https://eadaily.com/ru/news/2019/07/12/turciya-i-rossiya-budut-razvivat-zheleznodorozhnye-gruzoperevozki(검색일: 2019년 07월 28일)

민지영 리포터(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)

misjee@hanmail.net

주요 통계

러시아 수역별 주요 어종별 가격 동향(2019년 7월 29일~8월 4일)

(단위: 루블, %)

연방관구	어종	1kg당 가격	가격 변동률	
			주간	7월 29일~8월4일
극동 연방관구	태평양 대구	176	-1.10%	-11.10%
	명태	105	1.90%	7.10%
	태평양 청어	59	0.00%	18.00%
	가자미	110	-2.70%	22.20%
북서 연방관구	해덕대구	210	0.00%	0.00%
	대서양 대구	250	0.80%	-15.30%
	고등어	125	-3.80%	0.00%
	대서양 청어	75	-3.80%	7.10%
중앙 연방관구	고등어	135	-3.60%	3.80%
	명태	120	0.00%	2.60%
	열빙어	105	0.00%	110.00%
	대서양 청어	87	-3.30%	19.20%

참고자료 : 자료: http://www.nfr.ru/media/files/monitoring/2019/monitoring.05.08.2019.pdf
(검색일: 2019년 8월 6일)

Peter Ruzankin 연구보조원(KMI 러시아연구센터)

7-914-345-3947, aquillar7@gmail.com